

# 들어오고 나가는 고장이 바로 한곳입니다

## 25면에서 계속

으면 벌써 이 공부 하긴 틀렸어요.  
왜 우리가 또 이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 
나? 보세요! 우리는 지금 미래의 정신세계의 노예  
가 돼서 어떻게 자유스럽게 살 수가 없습니다. 또  
우리가 그렇게 빈집으로서 노예 생활을 한다면,  
이 지구라는 우리 집도 주인이 없으면 망가지게  
돼 있고 우리 몸뚱이도 내 중심이 없고 주인이 없  
다면, 한마음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이 집도 망  
가집니다. 그뿐이 아닙니다. 자기가 이 세상에서  
육(肉)을 부모한테 받아 가지고 나온 겁니다. 자기  
영혼이, 즉 말하자면 거기에 개입이 돼 가지고 어  
머니의 살을 빌리고 아버지의 뼈를 빌려서 한 몸  
을 받아 가지고선 자기 영혼이 자기 과거에 살던  
업적 인과하고 같이 거기 들어갑니다. 그래서 삼  
합이 한데 합쳐지니깐 그걸 삼신이라고 그랬습니  
다. 삼신! 어머니의 신 아버지의 신 자기의 신, 이  
렇게 해서 삼신이 들어야 된다고 소립니다. 그래  
서 삼신을 받는데 어디로 삼신을 받으려 다닙니  
까, 글썽. 나 한 참!

공자님 어머니도 삼신을 받는데, 자기의 육신  
을, 살을 빌리고 우리 영감의 뼈를 빌려서 몸 하나  
를 이렇게 바칠 테니 좋은 영을 달라고 그랬습니  
다. 6년 동안 기다리면서 아무리 골라 봐도 좋은  
영이 들어오질 않아요. 아마 만일 지금의 유교적  
립 및 불교는 송상 안 했기 때문에 항상 그렇게  
풀었던 모양입니다. 거기서도 그랬던 모양이죠,  
그때 당시에, 6년째 다녀도 소식이 없었으니까 '에  
이, 이것 놔라! 뭐 내가 아무리 믿고 그렇게 해  
도 소용이 없구나' 하고선 포기했죠. 7년 만에 꿈  
을 꾸니까 그산 부처님이 하는 소리가 '애야, 네  
가 좋은 영을 달라고 그래 가지고는 운동 고르느  
라고 내가 애를 쓰고 골라 봤는데 지금 7년 만에  
그저 쓸 만한 영이 하나 들어왔으니 오너라.' 이  
렇게 꿈에 나타난 겁니다. 꿈도 생사고 생시도 꿈  
이거든요. 마음으로 전달을 하니까 이심전심으로  
그 사람 꿈으로부터 그냥 받은 거죠. 그 마음을 모  
르니까, 그래서 부라사라 부라사라 7년 만에 가서  
입신이 된 것이 바로 공자님이시랍니다.

그런 거와 같이 여러분이 자식을 낳고 살면서  
자식을 낳기만 했다고 자식이 아니라는 거 여려  
분은 아마 손살피 더 잘 아실 겁니다. 자식의 인연  
을 갖는 것도 까리까리들 자식의 인연을 갖는 겁  
니다. 여러분이 차원이 높으면 차원이 높은 영가  
가 내 자식이 될 것이고, 또는 내 부모가 될 것이  
고, 만약에 차원이 낮으면, 장 종지라면 장 종지밖  
에 더 될 겁니다? 장풍은 강풍끼리 모이고 배는  
배대로 모이고 사과는 사과대로 모이고 정치인은  
정치인대로 모이고 지계꾼은 지계꾼대로 모이  
는데 지금은 지계꾼이 변해서 저 트럭 운전수들 있  
죠? 그들이 지계꾼이 돼 버렸죠. 그래 트럭 운  
전수에게 지금 지계꾼 노릇을 왜 안 하고 트럭 운  
전수를 하느냐고 항거한다면 그제 말이나 될 일입

니까? 부처님이 지계꾼 말씀을 하셨는데 왜 당  
신은 트럭 얘기를 하느냐고 날더러 이러거든요. 어  
떤 사람이 그런 사람 있어요. 부처님 말씀대로 지  
계꾼 얘기를 하지 어째서 트럭 얘기를 하느냐 이  
소리죠. 시대가 그만큼 변해서 그 지계꾼이 트럭  
운전수가 됐는지도 모르고 지계꾼 얘기를 아무리  
해 봐도 지계꾼은 지금 많이 없어져서 자라는  
사람들한테 지계꾼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습니다.  
그때 당시에 얘기하신 거를 지해가 있으면 바꾸  
어서 써야죠.

어떤 스님께서 세 제자한테 금 한 덩어리씩 주  
면서 "야, 3년만 너희들이 이걸 가지고 놀래라."  
그랬더니 그거 없어질까 봐 한 놈은 장 속에다 넣  
고 그냥 쪽쪽 싸 놓고 있고, 한 놈은 장사를 해서  
기껏 늘리고 또 한 놈은 그걸 가지고서 이자를 냈  
고요. 그래서 불린 놈은 상을 받고 장 속에다가 공  
공 넣은 놈은 하나도 불지를 얹고 그냥 고깃만 가  
지고 있다가 상도 못 받았죠. 어떤 이치가 있듯이  
우리가 부처님께서 아무리 좋은 말씀을 하셨어도  
그 좋은 말씀을 응용해서 뜻을 잘 받들어서 그 말  
씀이 바로 이 말씀  
이로구나 하고 알  
게끔 해 줘야 우리  
가 부처님의 제자  
일 뿐만 아니라 인  
간의 도리요 불자  
요, 이게 아니겠습  
니까? 그리고 중 편  
본의도 있고 중 된 본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 
이 다 불자입니다. 나와 더불어 같이.

또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, 여러분이 지수화풍  
으로 문쳐져 있기 때문에 지금 지수화풍을 먹고  
살고 그러면서도 감사한 줄 모릅니다. 여러분은  
자기 몸뚱이 감사한 줄도 알고 이 세상 모두..., 우  
리가 지수화풍으로 문쳐져 있기 때문에 사대가  
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. 그런데 돌 따로 또는 흙  
따로, 바람 공기 따로, 모두가 이렇게 돼 있지 않  
습니까? 물이고 불이고 바람이고 흙이고 다 따로  
따로 우리가 쓰고 있지 않습니까, 지금. 네? 우리  
가 한데 합쳐졌기 때문에 따로따로 쓸 수 있는 거  
거든요. 그래서 이런 말씀을 누가 하셨다고 그러  
더군요. 그전에도 그런 말이 있고요. "산과 물이  
돌이 아닌 까닭에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." 하  
고 한데 합쳐야 말이 되는 거죠. 그냥 산은 산이고  
물은 물이라 한다면 한 가지가 좀 빼졌지만, 빠진  
것도 없고 안 빠진 것도 없는 그런 도리를 말씀하  
셨죠.

그렇게 지수화풍으로 문쳐서 우리가 이렇게 사  
람으로서, 만물의 영장으로서 살기 때문에 그 바  
람도 공기도, 즉 말하자면 물도 불도 흙도 우리가  
마음대로 쓸 수가 있는 거죠, 따로따로. 그러니까  
물은 물이요 바람은 바람이요 흙은 흙이요 불은  
불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. 우리가 지금 한  
데 합쳐졌으니깐 그런 거예요. 그러니깐 모두가

한데 합쳐져서 벌어졌다 오그라졌다 벌어졌다  
오그라들었다 벌어졌다 오그라들었다 구르면서  
도 일 초도, 일본일초도 쉬지 않고 지금 돌아가는  
이치가 바로 그런 도립니다. 아무리 좋은 말을 해  
도 알아듣지 못하고 이런 도리를 모른대서야...  
우리는 지금 미래의 세계, 그 정신세계에서도 약  
조건이 있고, 선으로 모든 중생을 건져 줄 수 있  
는, 육황상제라고 이름을 지어 놓은 것도 각을 이  
룬, 이 오온의 모두를 책임을 지고 있는 그 마음을  
말하는 겁니다. 거기에서, 바로 그 마음에서 나오  
는 거를 연등부처다 이립시다. 연등부처, 마음의  
부처, 이 밝은 마음이 연등이죠.

내 마음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생각을 좋  
게 하는 것이 인등이예요. 인등! 이거는 쉬지 않고  
인등을 쉼 수가 있는 거지만, 아니 꼬리표 붙여 놓  
은 거는 백 일이나 그렇게 붙여 놓으면, 그러고도  
또 자기의 힘도 안 들고 돈 몇 푼 내면 전기로다  
가 그냥 켜는 거죠. 여러분을 그렇게 우뚝하고 그  
렇게 해도 여러분은 좀 개심할 그런 생각이 없습  
니까? 그리고 부처님이 말씀하시기를 "내 마음으

고 요리 변하고 조리 변하고, 자기의 마음은 언제  
발견합니까, 네? 한 폰이든지 두 폰이 되든지 한  
군데 탁 놓고 이 세상에 벌어진 문제를 내가 해결  
하라고 맡기면 그 밑의 부하들이 다 하고 위에서  
다 할 거 아니니까? 예를 들어서 말한다면,  
이렇게 모두 공부들을 하셔야 정말이지 49년  
살하신 그 부처님의 불제자가 될 것이고 정말이  
지 만물의 영장이 될 것이고 또는 삶의 보람을 느  
끼니까, 즉 말하자면 자유인이 되는 것이고, 그 뒤  
에는 '공해서 이거 하고 저거 하고, 남편이 됐다  
가 아들이 됐다가 온통 사위가 됐다가 이리다 보  
니까 어떤 거 될 때 나라고 할 수가 없네.' 이런  
때, 그 도리를 할 때 여러분은 부처가 되는 것입니  
다. (기침하심)

내가 이려고 있을 때 '저이는 뭘 소리를 하는  
지...' 끝날 때만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겠  
죠. '저이가 얼른 끝났으면 좋겠는데...' 하고 하  
하하... '뭘 말이 저렇게 많은가?' 하고요. 그런데  
나오는, 우리 스님네들은 내가 기침을 하거나 뭐  
사래가 들리거나 이래도 '아이고, 저분이 목을 저  
거 해서 오래 살지  
못하면 어쩌나?' 하  
고선 걱정합니다.  
근대 나는 이런 걸  
가르칩니다. 이따가  
죽는 한이 있더라도  
지금 심고, 하고,  
그 본(本) 제 나무에

쫓고 쫓겼는데 내가 어떤 거는 되지 않았으리. 저  
거는 모자랄 때 내 모습이나.' 또 참 저거 하는  
사람을 볼 때 '아하, 저것은 바로 내 주인공의, 나  
를 이끌고 다니는 주인공의 모습이야. 모든 게 내  
모습 아닌 게 없고 내 이름 아닌 게 없고 내 형제  
아님이 없고 내 부모 아님이 없고 내 자식 아님이  
없구나.' 이게 실감 안 날 거예요. 내가 이런 말을  
해도.

부처님이 그 수많은 해골바가지가 있는 데 가  
서 큰절을 했습니다. 제자들이 수십 명이 따라가  
다 가만히 보니까 그러고 계시거든요. "사생자부  
이신 어머니신데 어찌 그 하치않은 뼈다귀에다가  
큰절을 하십니까?" 하고 한탄을 했거든요. 그런데  
부처님이 상국이 웃으면서 "애들아, 미생물에  
서부터 진화되면서 쫓고 쫓기고 올라오면서 어찌  
내 부모 아닌 게 있었겠나. 그리고 내 자식 아닌  
게 어디 있었겠나. 내 형제 아님이 어디 있었겠나.  
그러니 저 해골이 내 어머니 아니라고 할 수 없고  
내 할아버지 아니라고 할 수도 없고, 내 어머니도  
될 수 있고 내 자식의 해골도 될 수 있고 형제의  
해골도 될 수 있는니라." 그때에 "이 심오한 뜻을  
미처 몰랐습니다." 하고 제자들이 전부 앞다투어  
울었다 말입니다. 이 말을 왜 하느냐 하면, 지금  
내가 이 얘기 하다가 그 말을 한 거를 잘 생각을  
해보십시오.

내 자식 아님이 없고 내 아픈 아님이 없고 내 부  
모 아님이 없으니 내 부모한테도 그렇게 못했으  
면 남의 부모한테라도, 그것이 언제 적에, 언제 어  
디에서 그 노인네가 내 부모가 돼 있었을지도 모  
르고 내 자식이 됐을지도 모르거든요. 그러니 남의  
부모를 보더라도, 남의 노인을 보려도  
도 물질적으로나 마음적으로 항상 내 부모같이  
생각하는 그 마음, 그게 무심 도리어 무주상 보  
시입니다. 또는 물질이 조금 있어서 저거 할 때,  
내 자식이라고 생각을 할 때, 학자금을 못 내서 부  
모가 아플 때 '저게 바로 내 아픈이였지. 아니, 저  
것은 바로 내 자식이야.' 그럴 때 학자금을 내 줄  
수 있는 그 아량과 사랑이 생기는 겁니다.

그래서 우리 법우님들 저기 해 놓은 것도요, 전  
부 그 안에서 학자금 못 내고 가난하거나 이런 거,  
또 취직을 못해서 애를 쓰고 그러는 사람, 서로 돌  
봐 주면서 서로 학자금을 내 주게끔 이렇게 돼 있  
거든요. 유심으로는 무심으로는 또는 무심 도리  
나 유심 도리나 우리가 행하는 것이, 생시에 사는  
것이 꿈이요 꿈도 생시입니다. 우리가 생각하고  
사는 게 전부 꿈이예요. 우리는 잠시잠깐 캄캄 왔  
다가 날이 어두워지면 다 집으로 돌아가는 거와  
같이 우리 인생이 그렇게 무상하다 이겁니다.

## 그저 제 나무에서 실과가 열리고 무르익어서 만 가지 맛이 나는 실과가 돼야 합니다

로써 이름을 지어 놓노라. 동방에는 아축이요 서  
방에는 아미타니라. 이 사바세계는 관세음이니  
라. 지천국에는 지장아니라.' 이 모든 것을 한 부  
처님의 마음속에서 그 이름들, 아버지가 큰아들  
은 아무개고 둘째 아들은 아무개고 이렇게 이름  
지어 놓은 거와 똑같이 그 이세, 그들에게 이름  
을 붙여 놓은 거죠. 그런 거와 같이 부처님의 마음  
은 그렇기에 석존을 모셔 놓고 삼불을 모셔 왔습  
니다. 이 불은 바로 변함도 없고 더함도 없고 탈함  
도 없는 그 불기둥을 말한 것이고 바로 마음을 낸  
법을 말하는 것입니다. 문수는. 그러니 이분의 마  
음이고 이분의 행하는 생각입니다. 법이. 문수는  
부처님의 법신이요, 또 보현은 바로 법신의 직속  
화신이다 이겁니다. 보현이. 그러니까 움직거리  
는 거와 생각하는 거와 생각을 낼 수 있는 힘, 불  
기둥을 여기다 이렇게 놓고 양쪽을 두 팔로 생각  
하셨습니다.

그랬는데도 여기 놓고 빌고 저기 놓고 빌고 저  
기 놓고 빌어야 되겠습니까. 가난한 사람들이 돈  
벌어서 신중당에 놓고 또는 칠성당에 놓고 지장  
부처님께 놓고, 또는 약사보살한테 놓고 용신한  
테 놓고 독성한테 놓고, 이것 놓고 저것 놓고 보  
니까 사람들의 마음 닿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. 여기  
안 놓고 가면 마음이 깨닫혀서 그거를 요리 버  
르고 저리 벌려서 요리 놓고 저기 놓고 요리 놓고  
조리 놓고 해서 그 마음이 요리 변하고 조리 변하

서 실과가 열리게 하고 무르익게 해서 맛있는 실  
과가 돼서, 여러분에게 처치무용이 되는 게 아니  
라. 그저 와서 하나라도 사 가면 만 가지 맛이 날  
수 있는 그런 실과가 따라야 이 소립니다. 그래서 노  
대상에서 와서 가져가면 가져가지 소매로 팔진  
마라. 허허하... 그 얼마나 가난한 일이나. 그러니  
그저 제 나무에서 무르익은 실과가 돼야 된다고  
이겁니다.

이 불교는,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불교는 어느  
교에 가도 통달고 너무 대의적인 묘법이기 때문  
에 무(無)의 세계 유(有)의 세계, 생각이 없는 거든  
지 생각이 있는 거든지 모든 것을 합하여서 돌아  
가는 거를 말하기 때문에 자기네들도 그것은 부  
정 못한다 이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어디 가든지  
모가 나서는 안 되니까 그저 주위에서 어떠한 게  
들어온다 하더라도 '아하, 이 마음이 이심전심으  
로 벌써 내 주인공에서 저절로 통해 가지고 나를  
치는구나. 통달게 치는구나. 아하, 이런 내 탓이  
지, 네놈 탓이지 난 놈 탓이 아니로구나.' 이라고  
제 탓으로 돌려야죠. 그런데 이거는 바깥에서 '저  
놈이 그래? 정말 그랬어? 이놈 두고 보자.' 요러고  
가거든요. 그러니 자기 무의 세계 정신세계에서  
는 한 치도 내다 볼 수가 없는 거죠.

그러니 우리가 열심히, 자기 그릇에서 생각하  
지 말고 모자라는 걸 봤을 때는 '아하, 내가 미생  
물에서부터 거쳐 나오면서 수없는 진화를 하면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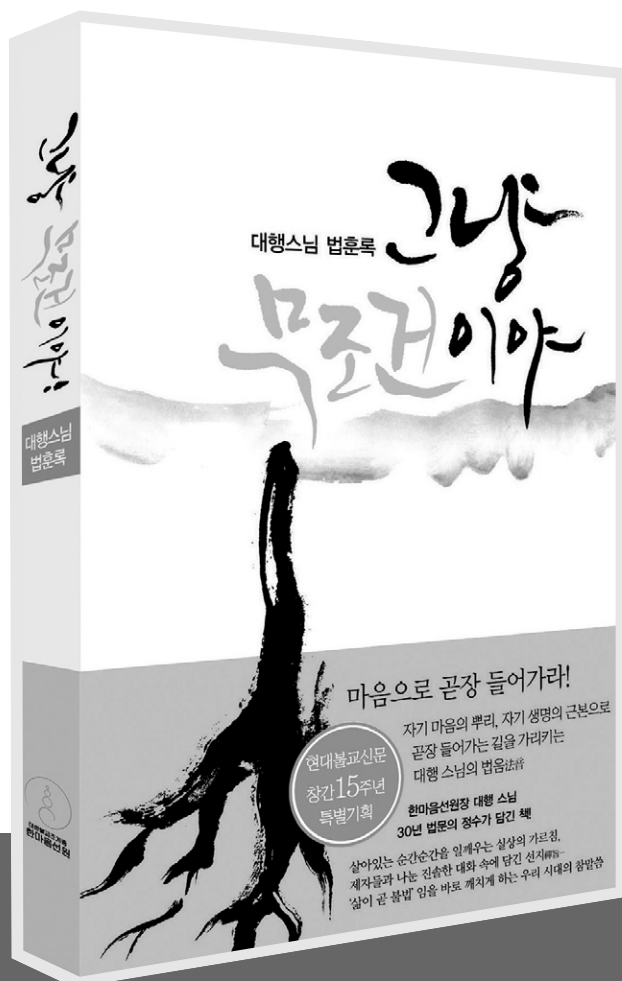
서 실과가 열리게 하고 무르익게 해서 맛있는 실  
과가 돼서, 여러분에게 처치무용이 되는 게 아니  
라. 그저 와서 하나라도 사 가면 만 가지 맛이 날  
수 있는 그런 실과가 따라야 이 소립니다. 그래서 노  
대상에서 와서 가져가면 가져가지 소매로 팔진  
마라. 허허하... 그 얼마나 가난한 일이나. 그러니  
그저 제 나무에서 무르익은 실과가 돼야 된다고  
이겁니다.

이 불교는,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불교는 어느  
교에 가도 통달고 너무 대의적인 묘법이기 때문  
에 무(無)의 세계 유(有)의 세계, 생각이 없는 거든  
지 생각이 있는 거든지 모든 것을 합하여서 돌아  
가는 거를 말하기 때문에 자기네들도 그것은 부  
정 못한다 이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어디 가든지  
모가 나서는 안 되니까 그저 주위에서 어떠한 게  
들어온다 하더라도 '아하, 이 마음이 이심전심으  
로 벌써 내 주인공에서 저절로 통해 가지고 나를  
치는구나. 통달게 치는구나. 아하, 이런 내 탓이  
지, 네놈 탓이지 난 놈 탓이 아니로구나.' 이라고  
제 탓으로 돌려야죠. 그런데 이거는 바깥에서 '저  
놈이 그래? 정말 그랬어? 이놈 두고 보자.' 요러고  
가거든요. 그러니 자기 무의 세계 정신세계에서  
는 한 치도 내다 볼 수가 없는 거죠.

그러니 우리가 열심히, 자기 그릇에서 생각하  
지 말고 모자라는 걸 봤을 때는 '아하, 내가 미생  
물에서부터 거쳐 나오면서 수없는 진화를 하면서

※위 법문은 1991년 4월 28일 국내지원법회  
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. 한마음  
선원 홈페이지(www.hanmaum.org, 한마음선  
원)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.

#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!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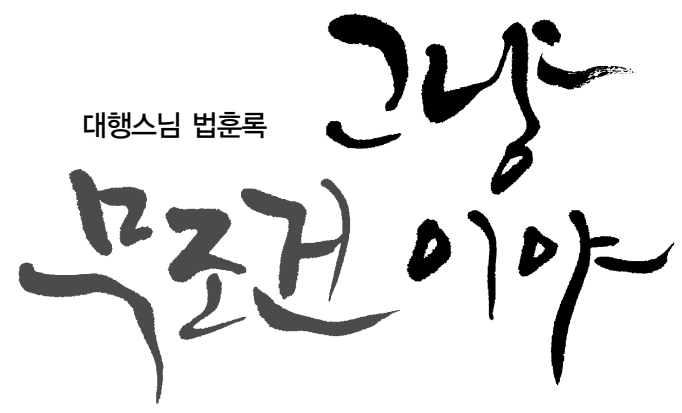


자기 마음의 뿌리,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 
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 
한마음 선원장 대행스님의 법음 法音

제자들과 나눈 진솔한 대화 속에 담긴 선지 禪旨 -  
'삶이 곧 불법'임을 바로 깨치게 하는 우리 시대의 참말씀

우리는 일체의 경계를 둘로 보지 않고 자기의  
있는 내면에 던져버리는 수행이 꼭 필요합니다.  
오로지 마음의 용광로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.  
주인공主人翁은 뜨거운 용광로입니다.  
일체를 다 녹이는 용광로,  
그 용광로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.

주문은 현불삼!  
02)2004-8216  
●●●●●  
농협 053-01-269062  
(주)현대불교선원사



양장본 / 211쪽 / 값 11,000원